

인간승리 화천기공을 찾아서 ⑥



권영렬 회장 결혼식(1973년)

(지난호에 이어)
그가 오라는 날에 맞춰 다시 최봉근을 서울로 불러 보냈다. 부총재는 ‘기계공업 이야기말로 이 나라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힘써 불태니 내려가 기다리라는 언약을 해주더라. 그런데 이번엔 부총재는 공작기계 국가의 기간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1965년 당시 나에게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빌려줄 리가 만무했다.

화천의 용자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대출의 발목을 잡고 있던 담보 문제가 후취담보의 조건으로 완화되면서 불과 1주 일만에 3천만 원이란 자금을 빌려 쓸 수가 있었다. 화천은 광주 양동에서 775평짜리 공장을 사들였다. 1966년 11월 이사를 하였다. 새로운 기계도 다수 설치하였다. 인원 역시 공동의 40여 명에서 15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공장 규모가 커지고 보니 돈의 쓸쓸이도 은행 돈 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사채가 급세 1천만 원을 넘어섰다. 은행 이자에 사채 이자까지 겹쳐 매월 200만 원이 넘는 돈이 이자로 나가게 되었다. 이렇다 보니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사채를 빌려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어렵사리 사채를 얻어 이자를 갚았다 싶으면 곧바로 직원들의 봉급날이 닥쳐왔고, 봉급을 맞추고 한숨 돌리다가 싶으면 자식들의 등록금 마감이 다음날이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공동공장을 천만 원에 처분해 사채를 갚았다.

일본 나들이에서 배운 것(1)

1964년의 일이다. 배순석이란 사람이 나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권상, 공장을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언제 일본에 오셔서 일본에 있는 공작기계 공장들을 한번 보시면 공장 운영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내 처지가 일본에 가는 것보다 기계를 만들어 파는 일이 더 급했다.

4년 후인 1968년 9월 서울 구로공단에서 세계산업박람회가 열렸다. 나는 화천이 새로 개발한 10자와 8자 짜리의 강력 선반과 정밀 고속선반, 세이퍼, 피대선반 등 5종의 제품을 출품해 높은 대학에 다니는 큰아들 영렬이에게 안내를 맡게 하였다. 어느 날 영렬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일본에 있는 야마자키(山田美)철공소의 사장 야마자키 씨가 우리 전시장에 들러 사장을 꼭 한 번 만나고 싶다고 명함을 주고 갔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다음 날 서울로 올라와 야마자키 회사의 서울 사무소로 그를 찾아갔다. 나를 만나자마자 “우리 회사와 기술제휴나 합작투자를 할 생각이 없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었다. 솔직히 말해 이 무렵만 해도 나는 기술제휴나 합작투자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좋습니다. 사장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회사 간부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귀사를 한번 가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야마자키 사장은 흔쾌히 응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왕에 일본에 오시려면 10월 28일부터 일본 동경에서 세계공작기계쇼가 열리니 그것도 구경하실 겸 그때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968년 10월 26일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가게 되었다. 동경부두 근처에 있는 하루미 기계전시장을 둘러보았다.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내가 완전히 별천지에 와 있구나’ 하는 강한 충격을 받았다.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

국, 일본 등 세계 선진공업국들이 제작한 대형 NC선반들이 즐비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그 기계들은 크며 성능 면에서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앞서 있었다. 이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한국의 기계 공업이야말로 ‘우물 안 개구리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기왕에 나선 걸음이니 일본의 발전상을 가능한 한 많이 둘러보고 그네들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은 나고야(名古屋)에 있는 야마자키 공장을 방문했다. 신간선(新幹線) 전철을 타고 갔다. 야마자키 공장에서는 화천이 만들고 있는 기어구동식 선반보다 한 단계 앞선 기술로 범용선반을 생산하고 있었다. 견학하면서 내가 느낀 점은 공장 내의 기계설비며 그 배치, 제품관리 등이 아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공장을 둘러보면서 앞으로 우리 화천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고 무엇을 개발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였다.

일본 나들이에서 배운 것(II)

그때 야마자키 공장에서는 벌써 선반 베드(Bed)의 표면에 열처리를 하여 기계의 내구성을 높이고 있었다. 당시 우리 기술 수준은 주물을 대충 깎아서 손질하는 게 고작이었다. 그 열처리 광경을 보는 순간 나는 “아! 바로 저거다. 내가 여기에서 담당 배워가야 할 것은 바로 저것이구나.” 하는 강한 충격을 받았다. 열처리 하는 기계를 구입하려면 얼마쯤 드느냐고 물어 보았다. 우리 돈으로 5천만 원 쯤 된다고 했다.

야마자키 사장이 제의한 기술제휴와 합작투자 문제를 협의하였다. 사실 이때 내 입장에서 기술제휴나 합작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설명만 열심히 들었을 뿐 무어라고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못했다. 내가 한 말이 고라는 헤어지면서 우리 간부들과 상의해서 연락하겠다는 것이 전부였다. 그들은 우리의 실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들은 합작 자체보다 우리를 앞세워 한국 시장을 넓혀보겠다는 계산이 더 컸던 듯하다.

(다음호에 계속)

재물을 대하는 태도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명문집안이란 어떤 것인가? 선조 가운데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 많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잘 이어져 오는 집안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한 명문 집안이란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결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높은 벼슬을 지녔다고 하여도 비열한 수법을 동원했다면 후대의 사람들이 명문집안으로 본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일화가 있다. 남조인 진(晉) 나라 때에 사(謝)씨 집안의 이야기이다. 사씨 집안에는 진나라가 북조의 침략을 막아 국가에 큰 공로를 세운 사람도 있고 또 높은 벼슬을 한 사람도 많았다. 그래서 진(晉)왕조에서는 효무제의 딸 진릉(晉陵)공주를 그 집안의 사훈(謝混)에게 시집보냈다. 물론 사훈의 집안은 부유해서 그 부리는 노비만 수천 명이였다.

그러나 사훈이 일찍 죽었다. 진나라에서는 젊은 공주를 청상과부로 늙힐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인지 사씨 집안과 인연을 끊고 돌아오게 하였다. 나라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던 공주는 어린 딸 둘을 두고 떠나야할 처지였다. 하는 수 없이 시택 조카인 사홍미(謝弘微)에게 집안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9년의 세월이 흘러 진 왕조가 송(宋, 유유의 남송)으로 바뀌니, 공주는 새 왕조의 공주가 아니어서 다시 시택인 사씨 집안으로 돌아 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공주가 아닌 동향군(東鄉君)으로 강등되어 예전의 시집으로 돌아와서 대문을 열었는데, 9년 전에 떠날 때와 조금도 다를없이 집안이 가지런히 다스려지고 있었다.

떠날 때 집안을 돌봐 달라고 부탁 받은 사홍미는 입출금을 빠짐없이 장부에 기록해 두었고, 꼭 필요한데만 지출하여 재산은 크게 늘어났고, 전답도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동향군은“복야(僕射, 남평 사훈)께서 살아생전 이 이야기 흥미를 중시하였으니 사람을 볼 줄 안다고 하겠구나. 그러나 복야는 죽지 않은 것이다.”하며 죽은 남편의 뜻이 조카에게도

이어졌음을 감탄하였다.

이러한 일이 있고서 얼마 후에 동향군이 죽었다. 이제 그가 남긴 많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문제였다. 이 일을 주관할 사람은 당연히 사홍미였다. 그는 돌아가신 백부 사훈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또 늘려 놓은 사람이었고, 사훈에게는 딸만 둘이니 이들을 시집 보내면 나머지는 사홍미의 몫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본 암암적인 사람들조차 재산은 두 딸에게 나누어 주되 남은 전답과 가옥, 그리고 노비는 사홍미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홍미는 백부의 이 재산에 손도 대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재산으로 백모의 장례를 치렀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사훈의 큰 사위 은예(殷微)가 도박을 좋아하여 재산을 탕진하고 사홍미가 취하지 않은 재산을 다 빼앗아 도박 빚을 갚았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위의 행동을 보았지만 사씨 집안사람들은 이를 가지고 전혀 다투지 않았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오히려 사씨를 비난하였다. 청렴한 것도 좋지 않은 재물을 강과 바다에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자 사홍미가 말하였다. “친척들이 재산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가장 비천한 행동이요, 그것이 없어도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재산을 두고 친척과 다투어야 하겠소?”

남이 잘 못한 것을 이유로 그 재산에 눈을 돌리는 것은 남을 핑계로 자기의 욕심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닐지? 우리 집안의 10세 추밀공(樞密公, 휘 수평)도 혼란 속에서 주인 없는 땅을 경작하면서도 주인에게 도조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가 전제가 끝난 후에 땅 주인에게 지불하지 못한 도조와 장부를 전해 준 것으로 유명하다. 두고두고 새겨야 할 태도이다. (다음호에 계속)

남북 이산가족들의 눈물을 보고

- 이산가족상봉 상설 정례화 되어야 -

□ 괴운 권 해 조

□ 權 貞 澤 (成均館 典儀 兼 典禮士)

일관했어. 그저 왜구의 근거지 역할만 해주지 않으면 좋다는 정도였지요. 그러나 임진왜란이 대마도의 운명을 갈라놓았어요. 양다리를 걸쳤던 대마도 주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일본화를 지향했고 일단 직후인 17세기 초 일본의 막번 체제에 편입했어요. 조선전기 때만 해도 조선의 신하임을 상당히 밝혔던 대마도(對馬島) 도주가 일본으로 넘어간 것이지요.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대외 1870년대 완전히 일본 화했어. 지금 대마도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땅이지요. 그 근거는 우리가 독도를 실효 지배하는 것보다 훨씬 근거가 미약해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에 비하면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어 많은 근거도 갖고 있어요.

해서 일본에게 다시금 말하고 싶은 것은 하늘이 알고 역사가 아는 독도를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오히려 대마도(對馬島)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친 우리 땅이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이 그 땅을 무력 강점했지만 결과 항진한 (대마도)의 병들이 이를 격퇴했고 의병 전 적비(戰蹟碑)가 대마도 도처에 있다.

1870년대에 대마도를 불법적으로 삼킨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 고로 우리 고유 땅 독도는 물론이요 대마도(對馬島) 또한 우리 땅임이 자명하기를 어서 빨리 대한의 땅 대마도를 반환하라 !!!

△ “1949년 1월 연두회관에서 일본에게 “대마도를 반환하라”고 요구한 이승만 대통령 회견 기사(동아일보).”

△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의 연말회견 기사. 일본이 강점한 대마도를 찾는 것은 夫地回復이라고 강조한 내용.”

오원 30명, 기자 20명 총 151명으로 확정 후 서울과 평양에서 제 1차 이산가족 방문단이 교환되었고, 2000년11월 30일-12월2일 2차 상봉, 2001년2.26-28일 제 3차 상봉 이후, 2010년 10월 금강산에서 제 18차 상봉까지 실시하였다. 2000년 이후 이번이 19차 상봉이다.

남북이 분단 된지 올해로 65년이 되었으니 이산가족들의 고통화로 생존자도 줄어들고 있다. 지금까지 이산가족 신청자가 12만 9287명이며, 현재까지 북한가족과 만난 납북인원은 겨우 1만 1800명이다. 신청자 가운데 5만 7784명이 이미 사망을 하였고, 생존자도 거의 80세 이상 고령이다. 특히 2003년 이후 해마다 3800여 명이 사망하였고 작년 9월 신청대상자 중 5개월 사이에 납북 2명, 북측 3명이 사망하였다. 그리고 이번 상봉인사 가운데 90세 이상이 납북은 25명인데 북측은 한명도 없었다. 특히 얼마나 상봉을 기다렸기에 20일 건강 악화로 거동이 불가능한 김섬경(91세), 홍신자(84세) 등 2명은 ‘죽더라도 금강산에서 죽겠다’며 구급차로 상봉장에 가서 구급차 안에서 상봉을 하고 21일 귀환하기도 했다. 이번상봉에서 6.25 전쟁기간 납북된 3명과 1972년 서해 홍어 잠이 중 납북된 오대양호 선원 박양수(58) 1명과, 74년 백령도 인근에서 납북된 수원호 선원 최영철(61)1명이 40여년 만에 만났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이 포함되지 않고 생사조차 알지 못해 큰 아픔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이산가족문제해결을 위해선 새로운 접근과 해결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남북한의 정치 이념의 차이를 넘어 인도적 차원에서 상시 정례화가 되도록 남북 간의 새로운 포괄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상봉 순서도 지금까지 추첨방식보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만나도록 고통 순으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정부는 지난 3월5일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위해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북측에 제의했으나 북측이 거부하였다.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이산가족상봉의 상시화와 정례화가 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해줄기 기대한다.

對馬島는 大韓民國 영토 즉각 日本은 返還하라! ②

(지난호에 이어)

그 뒤 1952년 1월18일 이승만은 ‘평화선’을 선포했어. 6.25전쟁 중 독도를 괴롭히는 일본에 대하여 ‘독도와 이어도’를 주권수역 울타리를 쳐서 대한민국 영토임을 선포하며 이 지역을 확보했지요. 대마도까지 평화선 안에 넣고 싶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대마도 해방전쟁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었지요.

국제법전문가(프린스턴 대 박사)인 이승만이 ‘실효지배’의 참뜻을 모르지 않았지요. 대마도를 도둑맞은 고종 때부터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평생을 일본 점탈 자들과 싸우다가 조국은 해방되었으나 대마도는 식민지 그대로이었으니까요.

19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信秀吉)가 대마도주(對馬島主) 소요 시시게(宗義綱)를 앞세워 조선을 침략한 전쟁 임진왜란. 왜국의 강압에 굴복하여 본의 아닌 용역을 맡았던 대마도는 조선의 엄벌을 받아 굶어죽기 직전에 다시 조선이 곡식과 면포 공급을 재개하여 살아났어.

삼국시대엔 각국세력이 혼재했으나 통일 신라 때부터 고려와 조선말까지 대마도는

<계림(鷄林=신라) 관할도서> <고려사> ‘고려의 목(牧)’>동대부(東萊府) 부속 도서로서 경상도 관찰사의 관할이었지요. 한중일(韓中日) 3국의 사서(史書)들과 지도들 또 구미의 지도에도 대마도는 조선 땅 코리아 땅이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조선 왕조 5백년간 대마 도주는 대대로 조선의 관직을 받았지요. 한 예로 세조가 대마 도주에게 내린 직명은 ‘승정대부 판중추원사 대마도 병마도 절제사’(宗政大夫判中樞院事對馬兵馬都節制使)이었

어오 조선왕조의 대마도 인식은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성종, 연산, 광해, 영조, 순조 등이 내린 ‘대마도 교지’를 비롯하여 빈번한 교류 기록에 <대마도는 조선의 속방, 군신기간(君臣之間)이란 표현은 한결 같았지요.

1750년대 영조 때 <해동지도>의 <대동총도(大東總圖)>설명문에는 ‘백두산이 머리가 되고 태백산맥이 척추가 되며 영남의 대마도와 호남의 탐라를 양발로 삼는다.’라는 말은 수천 년 내려오는 우리의 국토인식과 주권의식의 상징이었지요.’

해좌전도(海左全圖) 팔도천하지도(八道天下地圖) 동국조선총도(東國朝鮮總圖) 조선방역지도, 동국도, 천하대총일람지도, 조선전도, 강원도도(江原道圖) 경상도도(慶尙道圖)등등 대마도가 조선 땅이라는 것은 너무도 많아요.

퇴계 이황(李滉)의 문서, 실증사학자 안정복(安鼎福)의 ‘동사외전(東史外傳) 동사강목(東史綱目)은 물론 특히 다산 정약용(丁若鏞)은 ‘비어교(備禦考)에서 대마도 현장 사료 및 주민의 언어, 복식, 풍습 등을 종합하여 ‘일본 왜와 다른 대마 조선인의 문화인류학적 특징을 고증해 놓았지요.

이렇듯 명명백백한 조선 땅임에 변함이 없음에도 일본인들은 야만적인 야욕으로 1888년 명치유신 혁명에 성공하자 일본에 불어 닥친 정한론(征韓論)의 열풍은 대마도부터 탐내기를 시작 했지요

우선 대마도를 이즈하라번(嚴原藩)으로 만들었다가 1877년 나가사키 현(長崎縣)에 편입시켰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진행한 것이 <지도 변조> 절도 사기꾼 행각을 자행 했지요

조선은 대마도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총재단회비 △권봉도(부총재) 100만원 △권오수(부총재) 100만원 △권순택(부총재) 80만원 △권혁준(부총재) 100만원 △권종준(감사) 100만원 △권태석(부총재) 100만원 △권영훈(감사) 잔액 20만원	소 계 600만원
■ 중무위원회비 △권태연(재천) 20만원 △권영욱(합천) 20만원 △권승호(의성) 20만원 △권중원(부산) 20만원 △권혁근(대구) 20만원 △권중덕(안동) 20만원 △권경호(대구) 20만원	소 계 140만원
■ 대의원회비 △권태운(대구) 10만원 △권화성(창녕) 10만원 △권오중(안동) 10만원 △권준표(순천) 10만원 △권장은(안동) 10만원 △권희홍(대전) 10만원 △권오성(봉화) 10만원 △권상현(광주) 10만원 △권영하(문경) 10만원 △권영도(영천) 10만원 △권오갑(안동) 10만원 △권오기(안동) 10만원 △권혁정(대구) 10만원 △권순악(고양) 10만원 △권혁필(영등포) 10만원 △권정택(고양) 10만원 △권기택(청주) 10만원 △권태웅(음성) 10만원 △권영돈(광진) 10만원 △권오학(양천) 10만원 △권태경(밀양) 10만원 △권혁원(수원) 10만원 △권오주(안동) 10만원	소 계 230만원
■ 친조금 △추밀공과대종회, 목사공종회 20만원 △권봉도(부총재, 지하보수) 200만원	소 계 1,190만원



북 간의 새로운 포괄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상봉 순서도 지금까지 추첨방식보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만나도록 고통 순으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정부는 지난 3월5일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위해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북측에 제의했으나 북측이 거부하였다.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이산가족상봉의 상시화와 정례화가 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해줄기 기대한다.